뱀딸기

자연에서 찾아낸 아토피 치료약

조식제 서기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아토피란?

1923년 미국의 Coca와 Cooke가 항체를 발견할 수 없는 유전적 과민증을 통칭하여 이를 'Atopy' 라 명명하였다. 아토피란 그리스어로 '기묘한 질병' 이라는 뜻이다.

아토피성 피부는 홍반, 부종, 심한 소양증, 삼출(혈액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오는 것)과 부스럼 딱지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염의 일종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유전적 요인이 관여함은 잘 알려져 있어, 환자 가족의 약 50% 이상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임상적 관찰에 의하면 어린 소아에서는 달걀, 우유, 밀가루 등의 음식물이 중요한 allergen이고, 큰 어린이에서는 실내의 먼지, 꽃가루, 곰팡이, 털 있는 동물의 비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증상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였으나 단기간의 임상 증상 완화에만 효과가 있고 다시 수일 내에 증상이 유발되는 정도의 효과가 대부분이다. 스테로이드제제의 국소적 투여가 장기간 계속하면 부신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계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치료법이다.

많은 경우에서 체질개선과 민간요법, 한방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전질환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환경병, 생활병이라는 차원에서 자연건강법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들도 많다. 하지만 자연건강법으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아토피의 치료약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학계, 연구소, 기업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다.

주식회사 동부한농은 비교적 흔한 식물인 뱀딸기를 이용한 아토피 치료약(특허등록 제66420호의 "뱀딸기 추출물을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을 개발하였다.

발명자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한방에서 월경불순, 염증, 해열, 중풍, 해독, 어혈 해소 등에 사용되어온 뱀딸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추출물이 면역 억제능, 일산화질소(NO) 생성 억제능 및 싸이토카인 분비 조절능을 나타냄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실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아토피 증세가 상당히 완화됨을 확인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3개월 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9명, 13-20세 미만 청소년이 4명, 성인 5명의 환자에게 실험한 결과,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된 경험을 하였고, 주요 완화증상으로는 각질층의 진정효과, 가려움증과 홍반의 감소, 짓무름 감소 등과 함께 표피의 재생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뱀딸기 추출물은 여드름 등의 다른 피부질환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뱀딸기〉

뱀딸기의 생약명은 사매(蛇莓)라 하고, 최근에는 위암 또는 간암에 대하여 뛰어난 항암효과가 규명된 바도 있다.

(대한한방내과학회지, 김윤관 외 4, 사매가 수종(數種)의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참조)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뱀딸기 추출물 및 영지버섯 추출물 혼합물의 세포사멸증진제로서의 용도"라는 특허에서는 뱀딸기와 영지버섯의 혼합 추출물이 암 세포의 세포사멸을 촉진하거나,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방사선과 함께 처리할 경우 더 낮은 선량에서도 암 세포의 세포사멸을 촉진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뱀딸기와 영지버섯의 혼합 추출물을 이용하여 백혈병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초, 지치〉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또는 건조증을 치료하는 "자초 추출물(특허등록 제638352호)"이라는 연구를 공개한 바 있다.

자초(紫草)는 지치(학명 : Lithospermum erythrorhizon)과의 다년초로서 혈액 순환 촉진 작용, 해독작용, 항균 및 항염작용 등이 있어 각종 종기나 화상, 습진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한약재로 알려져 왔다.

발명자는 자초가 화상, 동상, 습진, 발진, 피부궤양 등에 소독약으로 외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한 결과, 피부

〈자초, 지치〉

표피 장벽의 지방 층상 구조가 손상되어 표피가 이상 증식되는 아토피 피부염 또는 건조증에 있어서 자초 추출물이 기존, 표피 과증식 억제 소재로 사용되어온 블랙커런트 오일이나 보라지유를 능가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서 저렴하고 간단하게 아토피 피부염 또는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이 약을 4-8g 물로 2시간 전탕하여 1회에 복용하고 1일 3회 공복에 복용하면 호전반응을 나타낸다.(전 경희대 안덕균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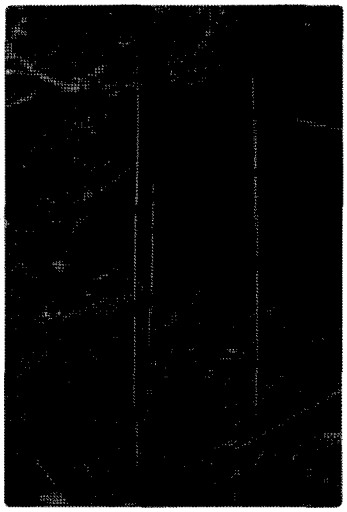
〈상황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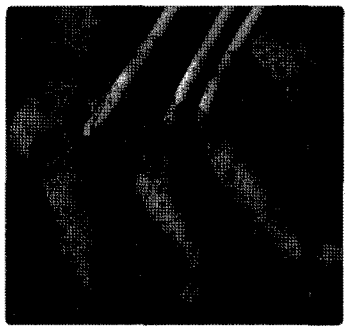
삼성생약주식회사에서는 상황버섯과 천마의 혼합추출물이 아토피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펠리누스린테우스 균사체 및 천마 혼합추출물을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및 접촉성 피부염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특허등록 제825070호)"이라는 발명으로서, 여기서 펠리누스 린테우스란 상황버섯을 말한다.

상황(桑黃)이란 말은 중국의 고서 봉황록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목질진흙버섯으로 불리며, 자연에서는 매우 희귀한 담자균류의 버섯으로 특히 상황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면역다당체는 높은 면역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항암치료의 보조요법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마는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神藥)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두통, 중풍, 불면증, 고혈압과 같은 두뇌의 질환에 뚜렷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궤양, 간질, 간경화증, 당뇨병, 식중독, 디스크, 백혈병,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어서, 민간에서는 천마로 못고치는 병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최근에는 무주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천마〉

동일인이 출원한 "펠리누스 린테우스 균사체 및 천마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증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이란 특허에서는 상황버섯과 천마의 혼합추출물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증식성 질환, 특히 암과 같은 면역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는 실험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돌외〉

주식회사 티지 바이오텍에서는 "덩굴차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용 조성물 및 화장품(특허등록 제584039호)"이라는 특허를 발명하였다.

덩굴차는 박과에 소속되는 넝쿨식물로서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의 산야지에 자생하는 식물이며, 돌외라 부르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칠엽담 또는 교고남이라하여 주로 기관지 천식 등에 차로 사용하고 있다.

덩굴차에는 스테로이드(steroid), 당류, 색소, 배당체들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 종의 다마란(dammarane)계 사포닌이 분리되어 보고됨으로써 인삼과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약물자원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식물이라고 하겠다.

본 발명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없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20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 20인 중 11인은 아토피성 피부염이 거의 원상회복되며, 6인은 상당히 완화되고, 3인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에 의한 과민반응이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덩굴차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약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확실한 치료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에 이루어진 아토피 치료약에 관한 특허, 연구들을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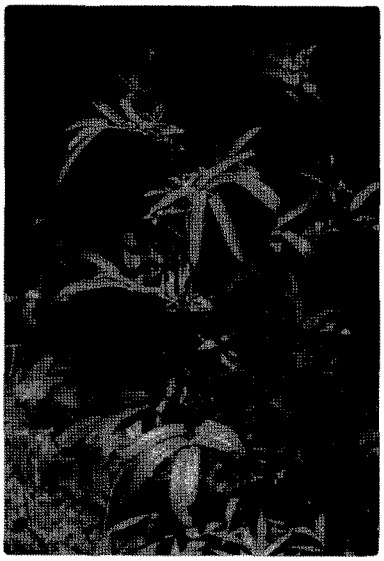
〈도꼬마리〉

그 외에도 "도꼬마리 발효액을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용 비누 조성물(특허등록 제898960호)"이라는 발명은 비누의 제조시에 도꼬마리 발효액을 첨가함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도 있다.

〈짚신나물〉

북한의 조선약학지에는 비교적 흔한 식물인 짚신나물과 오이풀을 이용한 "짚신나물오이풀피부염연고의 제조와 분석"이라는 내용도 있다.

짚신나물과 오이풀의 뿌리 엑스와 와셀린으로 만든 연고를 자극성 피부염환자 50인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치료한 결과, 완치 40인, 개선 9인, 변화없는 환자 1인으로 나타



〈오이풀〉

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환자 30인에 대한 치료효과는 완치 22인, 개선 7인, 변화없은 환자 1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연요법을 선호하는 이들은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 짚신나물오이풀피부염연고의 만들기

〈조성〉 짚신나물뿌리마른엑스 30g, 오이풀뿌리마른엑스 30g, 와셀린 940g, 전량 1,000g

〈만드는법〉 짚신나물뿌리를 0.5cm정도로 자르고 6배량의 뜨거운 물(80~90도C)을 넣어 6시간 추출하고 거른 다음 찌끼에 3배량의 뜨거운 물을 넣어 3시간 추출하여 거른다. 추출액들을 모두 합하여 졸이고 80~90도C에서 증발하여 거른다. 같은 방법으로 오이풀뿌리의 마른엑스를 만든다. 짚신나물뿌리마른엑스와 오이풀뿌리마른엑스를 처방에 따라 취하고 약갈이에서 가루내여 7호채로 친다. 와셀린을 수욕(40도C)에서 녹인다. 약갈이에서 7호채로 친 엑스가루를 적은량의 와셀린과 고루섞은 다음 남은 와셀린을 넣고 잘 섞어 연고를 만든다.

최근 같이 산행하는 친구로부터 아토피가 심한 환자에게 차가(chaga) 우림액을 만들어 마시도록 권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베리아 유목민들도 피부병에 차가를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음용만 하지 말고 차가 우림액을 직접 환부에 바르기도 해보라

〈차가〉

고 했더니 그 효과는 더욱 좋았다고 하였다. 물론 모든 아토피 환자에게 해당하는 요법은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방법이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천연물을 이용하여 부작용이 없고, 보다 저렴한 비용과 좋은 효과를 가진 치료약을 찾는 연구들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곧 적절한 치료약이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병이 오지 않았기에 그 치료 또한 한꺼번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결론은 치료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토피가 환경병, 생활병이라고 인식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활과 균형잡힌 식이습관을 가짐으로써 아토피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011. 5